



"임우영 담임목사의 고요한 아침편지"

**목회자 감사주일 (Pastor's Appreciation Sunday)**

2006년, 미국에 발을 딛고 사역을 시작한지 벌써 1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던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는 내 주변문화와 세계관에 적응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995년도, 대학교 1학년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소위 문화충격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들어왔던 목회자에 대한 낮은 인식이 실제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두렵기도 하고 이민목회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홀로 담당하며 짊어지기에 너무나 버거운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분들의 등돌림이 제게는 더더욱 이민목회에 대한 생각을 접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 역시 이민목회라는 현장 속에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목회자로서 아프고 지쳤던 마음을 깊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아버지 밑에서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 가급적 목사가 먼저 밥 값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아니었기에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헌신된 물질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 신념이 지금까지 제 자신에게는 습관처럼 남아있습니다. 많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할 수만 있는대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리더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우리만의 기준이 서로에 대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해야할 당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당연'은 사역을 떠나 인간적 관계에서의 '당연'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역적 측면에서의 당연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켜야할 고마움의 마음, 예의를 벗어난 당연함으로 변질 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목회자도 우리가 월급주고 고용한 employee", 라는 개념, 그러기에 해야하는 그 어떤 당연함,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줄게하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바나연구소에서 낸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미국 성인의 66%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91%가 목사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유익하다고 믿는다는 합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조사결과인듯 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글에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는 두 사람은 부모와 목사"라고 합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장 폭넓게 사람을 만나고 섬기지만 늘 외로운 사람", "모두의 비밀을 알지만 말 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신뢰 받으면서도 가장 의심의 대상인 사람", "먹지 못해도 배부르다고 할 줄 아는 사람", "금방 울고, 또 금방 웃을 줄 아는 특이한 사람",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나 한 분의 사랑만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10월 두 번째 주일을 '목회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 아닙니까? 여전히 목회자의 존재 자체를 유용하게 여기는 미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회자 감사주일' 과연 미국 사람들은 목회자의 어떤 부분을 고마워하면서 주일을 보낼까요? 보여지는 부분을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세지가 서로에 대한 당연함으로 가리워지지만 앓는다면 목회자 감사주일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 수 록 가슴 깊이 포근함을 서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목회자 감사주일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겠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우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담임목사: 임우영
Youth: Janice Kim
유초등부: Ahyuwani Akanet
(Teacher: Mike Brick)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www.chicagobridgechurch.org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담임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 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1부)이은신 전도사
(2부)한보현 자매

헌금찬양.....다같이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찬 211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3)>

느헤미야 2장 11-20절
(Nehemiah 2:11-20)

설교.....임무영 목사

“더 높이 튀어오르는 공처럼”
(Like a ball bouncing higher)

설교후 찬양.....다같이

“예수의 길 (The Way of Jesus)”

*축 도.....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본 당	
주일예배 2부	12:00 pm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 아 부	12:00 pm	Nursery
	유 치 부	12:00 pm	Room 14
	유 / 초 등 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공지사항

- 10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브릿지 교회 요람, 10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안내림 및 위경미)
-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매달 3, 4주일)
-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 www.chicagobridgechurch.org
-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instagram*) 오픈: ID (chicagobridgechurch)
-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3. 예배및 훈련

- 토요새벽예배(베드로전서 강해 9): 10/15(토) 6am, 현장및 Zoom
- 1부예배: 10:30am / 소예배실

4. Coffee Break 요나서 소그룹 모임 (3주차)

- 일시: 10/2(주일) 2pm
- 주일반 모임장소: 남성반(소예배실), 여성반(Room 10AB-한마음, Room 21-사랑방3 여성)

5. Coffee Break 산상수훈 소그룹 모임 (2주차)

- 기간: 10/12(수), 7:30pm (zoom)

6. Noah's Ark

- 일시: 10/31(월) 5pm
- 장소: 교회본당 및 Fellowship Hall / 내용: 예배, 맛있는 저녁 및 즐거운 게임
- 주관: 차세대팀 (문의: 황은수)

7. <박스는 사랑을 싣고> 프로젝트

- 목적: College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브릿지의 사랑의 패키지
- 일시 / 주관: 10/9(주일) / 차세대팀 (문의: 황은수, 김지영)

8. 2022년 장학위원회 임명

- 팀장: 정유진
- 팀원: 이희철, 박지웅, 이사무엘, 이창훈

9. 예배 및 봉사위원

- 친교: 안희자, 전성민 / 다음주: 윤흥규
- 다음 주 기도: **Ahyuwani Akanet (1부), 윤혜복(2부)**
- 10월 안내및 헌금위원: 배정은, 이신숙(헌금) / 안희자, 표춘자(안내)

10. 기도제목

-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사명을 잊지 않도록
-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위해
-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 (전성민, 이복희, 김창걸, 고지은, 박양자)
- 선교사님들 사역 (인도네시아: 샤론학교,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 멕시코: 최희영 선교사, 미얀마: 리안목사, 실버선교)
- 담임목사와 운영위원, 팀장및 사랑방 리더자들 (방지기, 부방지기)을 위해

11. 지난 주 출석: 어른(83), 다음세대(21) / 총 104명